

보답의 한길에 고결한 충정을 새겨온 빛나는 삶

피바다가극단 총장이었던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 김수조동무

혁명전사의 삶은 무엇으로 하여 그들아 아름답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것인가. 피바다가극단 총장이었던 김일성상계관인 공화국영웅 인민예술가 김수조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이에 대한 감동깊은 대답으로 된다.

김수조동무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용군에 입대하여 공화국의 품에 안긴 문예인이었다. 평범한 의용군병사자 후배 김일성상계관인으로, 공화국영웅으로, 인민예술가로서의 절정에 오를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김수조동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에 대한 출연출을 담당수행한것을 비롯하여 국가적 인 주요예술행사들을 성취적으로 보장하여 우리 당의 위대성과 조국건설의 일선전투의 위력, 불패의 기상을 온 세상에 알렸고 파시하는데 크게 공헌한 수준있는 지식인, 재능있는 문예일군이었다. 그에게 어떤 천부적인 예술적재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다. 한없이 고귀한 정치적정명을 안겨주고 절결을 손잡아 이끌어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을 떠나서 그의 빛나는 삶에 대해 결코 말할 수 없다.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과 실적으로 충직하게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한생을 강그리 불태운 고결한 충정에 바로 그의 삶의 참된 가치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 사이에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사랑과 보답의 의리가 있을뿐이다.》

김수조동무가 한평생을 늘

하던 말이 있다.

《나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인간으로서, 혁명전사로써 받아안눌수 있는 모든것을 다 받아안았다. 삶의 모든것을 강그리 바쳐 그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것이 나의 소원이고 행복이다.》

이것이 그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였다.

주제 80 (1991)년 어느날, 당시 조선예술교류협회 축전조직과장으로 사명하던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한 수조동무가 왔다고 반갑게 맞아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 동무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를 총지휘한 사람이라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해서 우리 당의 위대성을 세계에 빛내이는 데 한몫 담당한 한 사람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었다.

순간 김수조동무는 너무나 과분한 평가의 말씀에 눈곱이 수르르하게 달아올랐다. 그이를 우러르며 그의 가슴속에 한 평범한 예술인의 성정의 자욱자욱 옥마다에 뜨겁게 새겨진 위대한 어머니사랑과 믿음의 눈물결이 되겨졌다.

일제통치의 암담했던 시기에 가난한 목공의 아들로 태어나 불행중에 유년시절을 보낸 김수조동무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해방은 되었으나 남조선의 현실은 일제통치시기와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그이께서 계시는 공화국 북반부를 열렬히 동경하면서 불합리한 사회현도문을 남면저

개달은 그는 결연히 투쟁에 나섰다.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옥중투쟁과정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은 그는 진보적인 문예인들을 묶어세울데 대한 조직의 위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서울해방후 의용군에 입대하여 배우로 활동하던 그는 전라적인 일시적부시기 추호의 동요없이 사랑하는 부모형제들과 고향땅을 위해 두고 북행길에 나서 전선과 후방을 중흥무전하면서 투쟁의 노래로 전쟁승리에 이바지하였다.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져서 비로소 문예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음악무용수사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보아주시고 창작가들을 만나주시 자리에서 그의 손도 뜨겁게 잡아주시며 우리의 신진창작가들이 얼마나 많은가, 신인들이라도 집체적 힘을 합쳐서 창작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대견해하시며 앞으로 계속 힘을 합쳐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무해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그는 진정한 예술의 세계를 알고 광활한 예술무대에서 크직찬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예술창작가로서의 재능을 세계무대에서 더 활짝 꽃피우도록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를 총연출이하는 중임을 자각하였을 때는 행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 ...

그러나 그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자기에게 안겨주는 어머니장군님앞에서 그는 어떤

마마냥 눈물을 흘리었다.

잊지 못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예술창조를 더 훌륭하게 해보라고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대예술집단을 능숙하게 통솔하는 그의 창작가로서의 남다른 재능의 썩은 이렇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견한 것이 어찌하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오직 어머니수령님 한분만 믿고 평양으로 왔소. 나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천백번 옳다는것을 다시금 느꼈소. 술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우리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높이 받들거요.》

그때로부터 김수조동무는 더 큰 창작적재능과 담력을 안고 국가적인 주요예술공연들에 대한 출연출을 훌륭히 수행하여 어머니수령님께와 경애하는 장군님께 큰 기쁨을 드리었다.

그는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예술작품을 통하여 온 세상에 소리 높여 파시하기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였고, 그의 예술창조의 걸음걸음은 어떻게 하면 예술로써 당의 사랑과 의도를 실현하고 당의 위대한 수명을 이바지하며 당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펼쳐놓는가 하는데로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수조동무에게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과 《아리랑》 출연출을 맡겨주시었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사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당시 70살이었던 그는 뜻밖의 사고로 창조현장에서 쓰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병치료를 마다하고 또다시 출연출의 리

락에서 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결사적인 앞장에 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에 선군조선의 위용을 남김없이 파시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성과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출연출을 담당한 피바다가극단 총장동무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 동무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행사로도 성과적으로 보장한 공로있는 동무라고, 고난의 행군을 헤쳐가는 어려운 때에 큰일을 한것만큼 정치적적지에서 볼 때 마땅히 공화국영웅칭호를 주는것이 어찌하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김수조동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대로 세 세기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작으로 본래의 창조자가 위하여 김수조동무는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이러면 것이 제기되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장군님의 말씀을 자기자구 따져가면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음악과 무용, 제초, 예조, 배정, 미술, 무대장치 등 데 부문에 철저히 구현하였는것은 그의 한치의 드림도 없는 사명현의였다.

연예인이 작품의 수정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적이 있었다. 보통관례대로 하면 그가 내놓은 안은 모두에게 너무나 놀랄고 대단한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라고, 장군님의 의도가 바로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유일한 자막대기이며 그것이 바로 모든 창작적대상과 형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온갖 조치도 취해주시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사업을 끝낸 다음에야 70歳생일을 쇠겠다는 그의 말을 들으시고 민족의 풍습대로 쇠어야 한다고 생일상도 보내주시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해에는 몸가짜이 부르시어 설을식상까지 안겨주시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믿음은 70살이 지난 그가 청춘의 기백과 열정으로 살며 투쟁하게 한 고귀한 원동력이었다.

올해에 79살의 년로한 몸이였지만 김수조동무는 지평이를 잃고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전신도동당장전 65歳경극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창조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어느날 몹시 힘겨워하는 그를 걱정하던 눈길로 바라본 안해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난 죽어도 원이 없소. 있다 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천만분의 일도 사그라들 못하겠어요.》

지난 11월 30일 보답의 일념으로 한평생 뉘러던 그의 심장은 고동을 멈추었다. 그는 이렇게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격조높이 파시하는 길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걸터 섰다.

김수조동무는 비록 우리결을 떠났으나 그가 남긴 고귀한 그늘은 혁명전사의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를 감동깊이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영화

보통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선수후비육성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디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2010년 아시아 16살미만 축구선수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영예의 우승을 성취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보통강구역청소년체육학교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기쁨은 류달리였다.

조국의 영예를 승리의 금메달로 빛낸인 우리 청소년 축구종합팀 선수들가운데 학교출신이 여러명이나 되었던것이다.

가슴에 차넘치는 기쁨과 더불어 한 혁명동지에게 대한 소중함 추억의 물결도 끝없이 파도쳐왔다.

선수대회에서 내내내내 통쾌한 득점을 성공시킨 공격수 조광선수머 기민한 판단력과 민첩한 동작, 완강한 투지로 우리의 골문을 지켜 경기성과에 기여한 문지기 안강철선수, 거대한 축구를 높은 득점능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축구전문가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중간방어수 박명선선수, 학교의 기쁨이고 자랑인 이들은 모두 잊지 못되고 있었던 박찬식동무가 키워낸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이였다.

박찬식동무와 10여년을 함께 일해온 축구지도교원 김철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정말 박찬식동무는 축구선수후비육성에 온넛을 강그리 바친 유능한 지도교원이였습니다.》

학생선발을 위해 그가 걸은 길은 그 얼마나바 정화한 기조

영예의 우승자들을 배출한 자랑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훈련장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뿌려가던 날과 달,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리려고 시간과 야근을 아끼고 많은 도사들을 잃고 자라들을 연구해가던 탐구의 낮과 밤은 그 열매였던가.

여러차례에 걸쳐 축구종목의 학생들이 전국적인 축구경기에서 우승하는 자랑한 성과들을 이룩할 때에도, 품을여 키운 수많은 제자들을 체육단들에 보낼 때에도 기쁨보다 먼저 자기 입구에 대한 자각을 다시금 깊이 새겼다는 박찬식동무.

올해에 중 여달등안 안전지도를 받아야 할 때에도 그만큼 나라의 축구발전이 더디어지는것만 같아 한달만에 다시 훈련장에 나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교수훈련지도에 열중하던 그의 모습을 생생히 간직하고있는 이북 일군들과 지도교원들이였다.

비록 박찬식동무는 승리를 쟁취한 제자들의 몸통만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결을 떠나갔지만 그가 지니었던 고결한 념념은 나라의 축구발전과 더불어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났었다.

박찬식동무가 다하지 못한 몸자까지 합쳐 전도유망한 축구선수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낼 꽃같은 열의가 학교의 곳곳에 차넘치고 있다. 구역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집에 체육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축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의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 바친 유능한 지도교원이였습니다. 학생선발을 위해 그가 걸은 길은 그 얼마나바 정화한 기조

본사기자 오철룡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끝까지 받들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만수대인덕에서— 본사기자 찍음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기 합디다.》

주제 85 (1996)년 2월 신의주시에 어느 한 협동농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김련화동무는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성서농장 관리위원장으로 임하게 되었다.

당시 농장의 일부생산실태는 시한이 없었다. 견해에 큰물피해를 입은 농장의 토질은 지력이 매우 낮았다. 일부 농업근로자들은 농장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였다.

김련화동무는 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나서 깊은 생각을 잠겼다.

《오늘 우리 당은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면저 어깨를 들이밀고 앞장을 메고 달리는 대의의 기수, 완강한 실천가가 될것을 바라고있지 않겠나?》

그는 한해 농장의 농사를 책임진 자신의 어깨가 무거워짐을 절감하였다.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조선청년학생대표단 귀국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제1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5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리광학, 관계부서 일군들이 대표

지능형가금일개우기조장장치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발명한 이 장치는 가금류일개우기장치내부의 운송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알클리기를 진행하며 환기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장치이다.

제안된 장치는 일개우기에 필요한 각종 측정 및 조종기능, 수감부상대진단기능, 컴퓨터와 결합된 지능형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치를 도입하면 일개우기실수율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다.

분류식 수차

합흥수리동력대학에서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높은 분류식수차를 제안하였다.

이 수차는 중소형발전소용수차이다.

분류식수차는 대칭으로 된 1단과 2단날개바퀴, 분사수차와 안내날개, 분리원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사수차지는 안내날개, 조절판, 조절축, 조절판으로 되어있으며 안내날개의 여단김에 의해 조절된다.

분류식수차는 저수지는 있지만 물량변동이 매우 심한 지점이나 조절지수가 없이 하천의 막차를 리용하여 건설한 수력발전소에서 적용하면 효과가 있다.

새로운 청자기와생산방법

대동강달일공장에서 타일생산공정을 제취할 때 비적으로 처리하던 공화도석을 리용하여 청자기와를 만드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발명가들은 공화도석을 전식미분하여 한가지 원료를 가지고 저온 1차소성방법으로 질 좋은 기와를 생산하는 공정을 확립하였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종전의 일련화공정을 없애고 로력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실수율을 90%이상 보장할 수 있다.

본사기자

새 기술 소식

효과가 좋은 울리방향천공공진기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건설에서 지상과 경도사이, 경도와 경도사이를 연결하는 수직경과 사강의 굴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본공 랑팡, 판산에서는 수직경이나 사강을 착암기로 구멍을 뚫고 발파하는 천공발파법으로 건설하고있다.

천공발파법은 천공과 발파, 버러치작업에 힘이 많이 들뿐 아니라 로동안전조건이 나쁘다.

울리방향천공공진기는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뚫는 굴진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아웃존중도에 설치한 울리방향천공공진기로 아메추중경도까지 직경이 200-300mm인 안내구멍을 뚫은 다음 안내천공정머리를 확경정머리로 바꾸어달고 우로 끌어올리면서 암석을 절삭하여 굴을 완성한다.

이 굴진기는 수직경 및 사강굴진에서 천공발파법의 결함을 극복하고 기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현재 랑팡, 판산, 수력발전소, 지하철도건설장에서 누름계가 200-250MPa인 깊은 암석조건에서 최대굴기 1000m 이상, 직경 8m까지의 굴을 뚫는데 리용되고있다고 한다.

수직경과 사강굴전에 울리방향천공공진기를 받아들여 좋은 효과를 얻고있다.

건강의 좋은 물고기간장

자료에 의하면 최근 건강이 건강에 매우 좋다는것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물고기간장은 주로 수산물가공부산물과 가공할 가치가 적은 작은 물고기 등을 일정한 소금농도조건에서 발효시킨 면 액체상태의 조미료이다.

물고기간장은 절조기에 보통 간장과 비슷하지만 동물성단백질을 원료로 하기때문에 아미노산함량이 높고 여러가지 기능성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물고기간장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도 좋고, 로화를 막는데도 좋을뿐아니라 콜레스테롤저하작용, 당대사개선작용 등의 기능성도 크게 주목되고있다. 또한 수산물가공부산물로 만들수 있으므로 수산자원의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면에서의 의의가 있다.

본사기자

우리의 집은 랑의 품

서성구역인민병원에서

《섬실합니다.》

첫눈에 알아 못보는 의료일군들에게서 서운함을 느낀 사람은 60이 지난 한녀인이였다.

몸같이 쇠려가고있고 그렇게 말라보였는가고 녀인이 이르며 사연의 첫마디를 떼서야 의료일군은 그 누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때 그날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다.

병원은 그 녀인에 대한 치료로써 자기의 연학사과에게 척추수술 단번성공이라는 기적적인 위훈을 새겼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입니다.》

3년전 여름이었다.

서성구역인민병원으로는 한 환자가 급히 실려들어왔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당황하였다.

10번째, 11번째의 흉추추체가 다 녹아있어 남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도저히 앉을 수 없기 힘들어하는 녀성.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당할 해야 했으나 그에게는 합병증까지 있어 쉽게 결할수 없었다.

방도는 무엇인가?

병원은 지난 시기 특별성공자를 비롯한 전문과적치료로서 이렇듯한 성과를 이룩하여 소문을 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일마전에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농장적인 체육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작업반별분별행진으로 시작된 이날의 체육경기는 대중운동제, 건강레전도, 탁구, 장기 등 다채로운 종목들과 민속유희오락들로 이채를 더하였다.

응원열의가 높아지는 속에 출전한 선수들은 정성에 편마해온 체육기술과 집단주의정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잘 보여주었다.

로동봉사원 한우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총대병사로 자라난 아들들의 소식을 받아안은 기쁨 —순천시 금천동 26인민반 조제봉동무의 가정에서— 김진명 찍음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였던 김용주 제일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일

제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5일 비행기로 평양을

백두의 녀장군을 우러르는 남녘의 마음

세월이 흐를수록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칭송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김정숙어머님의 한평생은 나라와 민족, 민중을 위한 헌신의 역사로,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생애로 빛나고 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혼신을 강리코 바치시며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의 위대한 오솔 밭이던 청송하는 백두의 녀장군, 항일의 녀성영웅, 충신의 귀감이라는 고귀한 존엄에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있다.》

《학사에는 애국충절로 이름을 남긴 녀장군도 있고 무공을 세운 녀장군도 있지만 김정숙동지와 같이 만고의 빨치산대장군을 평생 모시고 민족구원의 혈전장에 함께 계시며 자신께서 직접 혁혁한 후손을 세우신 빨치산녀장군은 없었다.》

... 열렬하고도 뜨거운 이러한 칭송의 목소리들에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가슴속에 새기고 사는 남녘의 민심이 그대로 이어져있다.

세상에 제노라 하는 녀장군이 많았지만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천공으로

지니시고 짧은 생이지만 별처럼 빛나게 사신 김정숙동지 같은 녀성영웅은 없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정숙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을 지니시고 수령님의 조국해방위대와 건국로선판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해 나가실 절충한 평등자로 받아들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어머니는 너무도 일찌기 우리의 길을 떠나시었으나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겨레의 가슴속에 영생하고계신다.

하기에 남녘겨레들은 김정숙동지의 한평생은 위대한 충신, 절충한 민족적영웅의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그이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것이다.

연인간기 서울에서는 자주회생원들의 모임이 있었다. 모임에서 한 회원은 《백두의 녀장군도 명성높으신 김정숙녀사의 탄신일을 맞는 뜻깊은 이사가 우리 민중의 마음은 위대한 김정숙녀사의 가장 가까운 집요이시고 혁명동지이신 어머니에 대한 사후적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불타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일찌기 10대에 벌써 김일성주석님의 전사가 되어서 손에 총을 들고 백두밀림에서 항일대전을 벌리신 빨치산의 녀장군이고요 해방후에는 통일독립된 조국건설을 위해 활동하시느 주석님을 정력적으로 보좌해드리신 위대한분입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조국과 겨레를 위한 주석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무조건관철의 정신, 주석님의 사상과 로선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도 없이 투쟁해나가는 혁명적원칙을 품심으로 지니고계셨다. 언제 어디서나 김일성주석님의 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라고 행동하시며 민족을 주석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진실성으로 교양하고 이끌어 가신 녀사의 이 고결한 품성이야말로 우리들이 따라배워야 할 품성이라고 본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김정숙녀사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은 곧 우리의 하늘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명이시라고 여기고있다.》

1940년에 있는 대사회화기 전투때에 사령부를 보고 온 밀히 거어드는 왜놈들을 발견

하고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김일성주석님을 온몸으로 막아 나사시었다. 흥기하진투때에는 사령부쪽으로 달려드는 적들을 외면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힘겨운 전투를 벌리기도 하시었다. 해방후에도 위대한 주석님의 신변안건과 건강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시었다.

김정숙녀사는 우리 민족이 자랑하고 높이 따라야 할 조건의 어머니입니다.》

어찌 이렇듯의 심정이라. 언제나 한 지식인의 집으로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찾아와 며칠전부터 벌어진 민족의 운명문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있는 일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주인이 먼저 말머리를 떴다.

《오늘 우리 겨레와 진보적인 류가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올라 운명도 미래도 다 말이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적품성을 우러를 때마다 자주시대의 찬란한 태양을 안아올리시어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놓으신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을 생각하게 된다. 녀사께서는 참으로 조국과 민족앞에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다. 나는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업적이 가지는 중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며 녀사께 다함없는 감사사를 드리곤 한다.》

그의 말에 머리를 끄덕이던 다른 한 지식인이 말을 받았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실천공이 휩쓰는 백두봉에서 조선의 미래를 안아올리시었다. 녀사께서는 아드님이 아버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대를 잇도록 세심한 관심을 두시었다. 생전에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녀사의 업적은 아드님을 잘 키워 자신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한것이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오래도록 그칠줄 모르는 박수소리에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으신 영원 불멸할 업적을 칭송하는 남녘겨레들의 뜨거운 마음과 무뎠려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 굳은 의지가 그대로 비쳐 있었다.

이처럼 남녘겨레들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밝은 미래를 펼쳐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본사기자 최복은

자주로 존엄떨치는 주체의 나라

남조선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평등도에 자주로 존엄떨치고 자립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공화국 북반부를 끝없이 동경하고있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건설에서 내는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고있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널리 전하고있다.

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식 CNC기술의 발전, 주체철도, 주체철강, 주체비료생산 등 중요공업부문에서 기술과 원료를 주체화실현을 원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해 전하면서 《이것은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업적이며 우리식, (자력갱생)을 고수할것임을 명확히 하신것》,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업적이며 우리식, (자력갱생) 등에 대해 강조하신것은 인민생활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신문 《자주민보》는 대개도간격지 선진시대의 기념

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운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업적은 간석지건설을 통해 북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특히 대개도간격지건설되는 것을 풀기 위한 제방공사만 하다고 해도 어려운 조건에서 수년간을 두고 주민들이 최상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설계되었다.

대개도간격지는 북의 자주성에 대한 표현이며 가장 중요한 생활까지 넘어서는 주체의지의 표현이다.

대개도간격지처럼 출렁이게 될 장쾌한 황금물결은 북의 강력한 자주의 상징이며 또한 남쪽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크다.

인터넷신문 《통일뉴스》는 오직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고 믿는 북에서 대외존이 통할라만무하다. 수입지표에 명줄을 거는 대외존에 대해 그들은 일찌기 생각을 접었다. 북은 자력으로 개발한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경쟁업체들과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인민생활수준을 높이고있다 전하였다.

한 신문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무리 경제제재를 가해도 그리고 세계경제위기에 대해 그들은 얼어붙게 해도 자립으로 선진국들 부럽지 않은 리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견고하게 전진해가고있는 이북은 끄떡없고다 전하였다.

자주학회 성원은 이북이

자주로 존엄떨치고 자립으로 발전하는 주체의 나라로 위력을 떨치고있는것은 바로 천출위인 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라고 격찬하였다.

한 정치학교수는 끊임없이 대북을 일으켜나가는 이북의 모습은 바로 김정일명도자님의 자주정신과 혁명적기질, 담백의 표현이다. 김정일장군님위대한 선군정치로 북의 자주정신과 혁명적기질이 더욱 높아지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울산의 한 로조원은 사상강국, 정치대국, 군사강국을 다지시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어 떨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자립경제의 역적들은 기만우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땀과 눈물로 인민을 이여가신다. 장군님께서 부흥의 불꽃을 지펴주시고 건국의 공업지대와 농촌지대를 중흥무진하시며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계신다고 절절히 말했다.

한 통일운동가는 제국주의자들의 위협이 만무할수록 공화국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자주정신은 더욱 강하게 분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질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불굴의 기상에 경탄하며 북의 민족적 위용을 위한 투쟁의 길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송영석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얼마전 남조선피괴배당이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에게 《보안법》 위반이라는 무서운 《죄》를 씌워 끝끝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파조적폭거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12월 25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 보도 제970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피괴배당의 파조적폭거는 정의와 양심에 대한 만류한 유린이고 겨레의 통일년월을 대한 조국의 용납 못할 도적이다. 한상렬목사가 6. 15 공동선언 10조를 계기로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열렬한 지향과 결연한 의지로써 출발한 애국적성향으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그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북녘의 각계층 동포들과 만나 뜨거운 현실의 정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외세의 지배와 침략책동,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당등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

선언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괴배당은 한상렬목사에게 《승인》도 없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불법》, 《리격》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판문점을 넘어서기 바쁘게 야수적으로 체포구속하고 장기간 참출을 없애는 박해를 가하던 끝에 정적들로서의 파조적당등을 부린것이다.

동족이 사는 곳을 오고가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주장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한것이 어떻게 《리격》이 될수 있겠는가 《불법》이 될수 있겠는가.

북과 남의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을 가로막고 편벽을 범치시며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의 활동, 반외세자주투쟁을 탄압하는것이야말로 역적배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와 추악한 사대매국노의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낸것이다.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 인

사들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면서 통일애국세력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피괴배당의 하야오 남조선에서 민주와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파조와 동족대결만이 판무하고있다.

역적배당이 이번에 한상렬목사에게 중형을 들의운것은 북남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온 민족과 대외외론에 여행하여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길로 끝까지 나가겠다는 불순한 기도를 드러낸것이다.

통일애국에 등을 돌리고 분열과 대결, 전쟁책동에 미칠뿐없는 피괴배당이야말로 정적들이어야 할 민족의 심판대상이다.

남조선인민들과 해외의 각계층 동포들은 한상렬목사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미칠뿐없는 피괴배당을 강력히 규탄단죄해나사야 할것이다.

피괴배당은 한상렬목사에 대한 부적당한 처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본사기자

호전광들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연평도포격사건을 계기로 고베를린 북침전쟁을 앞장서서 더욱 무모하게 몰아대는 극악한 호전광들이 있다. 한반도에 실어도 찍지 않을 피괴배당장관과 합동참모본부장관이다. 피괴배당장관 김관진은 전쟁광기에 있어서 단언 갓손가락에 찔려 포사격도발이후 장관자리를 떠난 유일한 전쟁광신자이다. 그가 얼마나 전쟁에 환장한자인가는 《국외인사문첩모》파격에 날뛰니 드러났다. 이자는 지난 3일에 있는 《국외인사문첩모》에서 북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항공기를 통해 폭격하겠다고. 《우승》이니 뭐니 하며 화악니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여 부족하다면 합동지원력까지 투입해 추가격격》을 가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이어 김관진언도는 우리의 최고준엄까지 감히 드러내며 《주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언도는 《교전수칙》이 어찌나

리성을 잃은 전쟁광신자들

저쩌니 하면서 현장지휘관들이 《선조지, 후보고형식으로 강력 대응할것》을 일선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한편 《공세적시리전》을 떠밀어 버려 살포에 이어 군사분계선일대 11개 지역에 설치한 대형확성기를 통한 한반도포사격대대전을 개시하려고 날뛰고있다.

지난 20일에 또다시 강행된 피괴들의 연평도포사격도발을 앞장서서 지휘하였던 바로 이자이다. 김관진언도는 연평도에 서의 포사격훈련장소에 대해 운운하면서 훈련은 《우리 구역에 뛰니 하며 화악니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여 부족하다면 합동지원력까지 투입해 추가격격》을 가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이어 김관진언도는 우리의 최고준엄까지 감히 드러내며 《주적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언도는 《교전수칙》이 어찌나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들지 말고 단호히 짓부시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백수집단간이 나 우리 인민에게 해악할 수 없는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 등지를 틀고앉아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을 매일같이 감행하는 미제, 우리 인민앞에 풀이없이 빌고 또 빌며 천번대의 배상을 해도 씨천치 않음이 철천지원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을 부러우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으니 정말 치가 떨리고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포사격당등을 준벌히 단죄하면서 우리 인민의 기치밑에 감행한 자위적투쟁을 키워온것이 얼마나 자랑하였던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농업전선을 더욱 굳건히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북침전쟁도발이 날로 우세해지고있는 지금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을 굳건히 지켜갈 열의로 가슴 벅대우고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쏘만 같다. 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지 않았던가.

그에게서 우리 힘으로 농장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나가고있는것이 그리도 대견하시어, 나라의 쌀들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인 알곡생산에 애국의 수레를 바쳐가고있는 우리 농장원들의 수고를 헤아리시어 부여주시신 사랑이 너무도 뜨거운 보답의 마음안인 사갈이 일떠서 우리 농장원들이다.

그런데 남조선호전광들이 이러한 우리를 애도하고도 불분치를 들고 날뛰고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조선

단호히 짓부시자

맞고도 위험한 전쟁도발편을 벌려왔다. 여기에서 이자는 《추가도발에 따른 다각적대응책》을 운운하며 상연에게 《자위헌상》에 대한 승인과 「F-2A 28편」 전투기투입 등 미군의 화적지원을 적극 구걸했다. 한편 연평도 피괴배당부대를 찾아가 또다시 《강력한 응징》을 선포하며 애국자들이 처진 사명들을 우리에 대한 도발에 부추겼다.

피괴배당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 망발을 비롯한 남조선호전광들의 이런 무분별한 전쟁광기 어떤 파조적후파를 조처했겠는가는 짐작하기 어렵다.

불을 절기는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우리 근대와 인민은 외세의 북침전쟁사국이 되어 몰진지 불타고 쓰러지고 헤엄치는 전쟁광신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호전광들이 북침전쟁마차를 광란적으로 몰아떨어주며 무덤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송영석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

전인대아조선전선협회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규탄하여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피괴배당호전광들의 무모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전쟁이 나 평화나 하는 일촉즉발의 임종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군사적도발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정세의 악화를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도발적인 책동행위를 편이여 벌려놓을 때에도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해왔고 하면서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비호밑에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는것은 그 무엇보다도 더도 정당화할수 없는 무분별한 전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아시아의 세계평화와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민일 남조선당국자들이 감행하는 군사적도발이 조선반도에 엄중한 전쟁의 변화를 몰아오게 된다던지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에게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선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자위적투쟁과 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보인다.

한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령적분부와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군사적도발과 남조선피괴

호전세력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리명박 《정전》의 무모한 전쟁연습을 《정식훈련》이라고 비호하면서 국방부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군부호전광들의 《자위헌상》이니, 《단호한 응징》이니, 《전면전복사》니 하는 위협천만한 폭언들을 공공연히 두둔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 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온 겨레가 우리 인민과국외의 힘으로 미국과 리명박사대대국 《정전》의 전쟁책동을 반드시 막아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리울수 없는 평화 파괴자의 정체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과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피괴배당호전광들은 지난 20일 끝끝내 연평도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호전광들은 전투특기자와 다련장조체트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대거태세에 진입시킨 상태에서 수천발의 총포탄을 미친듯이 쏘아댔다. 조선서해해상은 그야말로 하나의 전쟁터로 방불케 하였다. 피괴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포사격도발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가 엄중히 유린당하였으니 지금 이 지역에서는 전쟁전야의 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번 연평도포사격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히 엄중한 무장도발이다.

지난 11월 피괴호전광들은 조선서해의 가장 민감한 수역에서 북침을 노린 그 무슨 《호국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측 병함에 포사격을 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그것이 불법무법의 《북방관계선교수》를 노린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으로 달려온 명백히 우리측 수역에 속해있는 섬들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 군사연습을 벌리겠다는 그자체가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피괴들이 남조선의 술한 섬들중에서

구애어 연평도를 골라 군사연습을 벌려놓은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의 도발적정격은 드러나고도 남는다. 불법무법의 《북방관계선》을 인정받아 보려는 술책은 북남사이의 대결과 충돌의 불씨를 뿌리고 긴장격화를 조성하는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남조선군부에 포사격훈련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 그로부터 조차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임을 거듭 엄숙히 경고하였던것이다. 엄중한 정세속에서도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여가에서라도 명백히 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괴호전광들이 연평도에서 우리측 병함에 무모한 포사격을 가하였다.

피괴들의 이번 포사격훈련은 바로 이런 침대한 정세속에서 감행된것으로 하여 지난 11월의 연평도포사격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것이다. 그것은 한차례의 도발로는 서차지 않아 2차, 3차로 도발을 거듭함으로써 우리와 무력으로 끝까지 대결하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다.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면서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발광하는 피괴호전광들의 호전적정격은 그 무엇보다도 더도 가리울수 없다.

피괴들의 연평도포사격훈련은 온

한 총포성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악랄한 기도의 발로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은 남조선피괴들이 연평도에서 포사격훈련을 감행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불아를 파조적후파를 우려하면서 그의 죄수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하지만 남조선호전광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강력한 응징》이니, 《보복》이니 하고 미친듯이 해뎠다. 피괴군부는 경도파괴용무기와 미사일을 도입한다. 무인정찰기를 배치한다 하면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을 박차를 가하였다. 리명박도까지 직접 나서서 《서해 5도를 요새화하라.》고 피대를 두들겼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사복입은 호전광들도 최전선일대를 싸들고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속에 피괴호전광들은 기존의 《교전규칙》을 보다 공격적인것으로 바꾸고 《선조지, 후보고》를 떠들며 연평도일대에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런 만민한 준비에 기초하여 피괴들은 지난 20일 연평도에서 또다시 무모한 포사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하고 그것을 우리로 북침전쟁을 가하여 도발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는 것을 과연 누가 부인할수 있겠는가.

은 정철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들지 말고 단호히 짓부시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백수집단간이 나 우리 인민에게 해악할 수 없는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 등지를 틀고앉아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을 매일같이 감행하는 미제, 우리 인민앞에 풀이없이 빌고 또 빌며 천번대의 배상을 해도 씨천치 않음이 철천지원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을 부러우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으니 정말 치가 떨리고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포사격당등을 준벌히 단죄하면서 우리 인민의 기치밑에 감행한 자위적투쟁을 키워온것이 얼마나 자랑하였던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분별없이 날뛰지 말라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려고 들지 말고 단호히 짓부시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백수집단간이 나 우리 인민에게 해악할 수 없는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준 미제, 오늘도 우리 조국 남녘땅에 등지를 틀고앉아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간, 폭행과 약탈을 매일같이 감행하는 미제, 우리 인민앞에 풀이없이 빌고 또 빌며 천번대의 배상을 해도 씨천치 않음이 철천지원수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을 부러우며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겠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으니 정말 치가 떨리고 격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의 무모한 포사격당등을 준벌히 단죄하면서 우리 인민의 기치밑에 감행한 자위적투쟁을 키워온것이 얼마나 자랑하였던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을 단죄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17일 문평을 발표하여 피괴호전광들의 연평도에서의 무모한 포사격행위를 단죄하였다.

문평은 합동참모본부가 18일부러 21일사이의 기간 연평도에 대해 포사격훈련을 할것이라고 떠밀던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라는 위험천만한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정부》가 불장난에 매달리면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을 단죄

메달릴수록 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대개도간격지를 철위하고 시급히 대개의 마당에 나서지 않는다면 민중의 가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500여개 단위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연평도회의와 《시민평화위원회》이 19일 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포사격훈련을 중지할것을 피괴당에게 요구하였다.

위험천만한 불장난 소동을 단죄

단체들은 당국이 연평도에서 진행하게 될 포사격훈련을 두고 《정상적인 훈련》이니 뭐니 하고있지만 그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평화는 남북관계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당국이 지금까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철성함대 대해 명시한 10. 4선언리행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것을 주장

남조선의 진보분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국의 청년세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지고 조선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것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군국주의의 이번 포사격훈련은 사상실상 전면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조선서해에서 긴장상태가 고조되는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10. 4

선언서 합의하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하루빨리 창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이 무모한 전쟁책동을 중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실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기도에서 구제역 발생

15일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구제역 발생한데 이어 16일 파주시의 한 농가에서 기르는 젓소들이 구제역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대다 10개 시, 군의 40여곳으로 늘었다.

【조선중앙통신】

생존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생존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

브라질 단체 인터넷에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호하는 군인들에게 담례를 보내시는 사진을 모시고 《희세의 명장 김정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홈페이지는 글에서 조선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그대로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9년간은 김정일최고사령관시절말로 희세의 명장이심을 실증한 나날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명철한 지략을 지니고 계신다.

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총대시사상과 로선을 심화발전시킨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전연적으로 펼치셨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을 강력히 군사적책으로 제압하면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미국의 압살정책과 경제적붕괴가 극도에 이른 엄혹한 사태하에서 군사에 이르는 힘을 기울이도록 하시으로써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었다.

그이의 지략은 공격적인 전략이다.

지난 1992년 사회주의수호를 위한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조선이 이룩한 성과파마는 천리해인의 신적지명파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신묘한 수로

대한 사랑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다.

이께서는 총참모관들을 단순히 병사로서가 아니라 사상과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로 간주하고계신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면 적들의 총구가 요양에 도사리고있는 최전방에도 서슴없이 나가시고 아슬아슬한 칼바람길과 사나운 폭랑길도 끼끼이 가시는 그이께서는 고수고수 하라 하여 조선에서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이사 관계는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었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결사옹위의 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은 핵무기보다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있다.

희세의 명장 김정일령도자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조선인민군은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다.

적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김정일령도자의 명활무쌍한 지략이 깃들어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투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 무비의 담력과 억척같은 배짱을 지니고계신다.

싸움때면 싸우고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배심, 불은 불로 다스리고 힘에는 힘으로 맞서며 총대는 총대로 계약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 이것이 그이의 담력이고 배짱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이러한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조선은 미국과의 정치, 군사, 외교적대결에서 편승할수 없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병사들에

블레진 발행

세목장, 부업기지 등을 세심히 다 돌아보시며 전사들의 생활 조건전도 로해하신다.

이께서는 또한 전사들을 만나시어는 건강상태와 군사부무정형은 물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관심해주시었다.

그이의 끊임없는 군부대시찰 과정에서 조선인민군은 필승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블레진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옛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가 이기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명장이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속하여 공화국의 중요국제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채택하게

핀란드 정계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하르유가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은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명장이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속하여 공화국의 중요국제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채택하게

미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

▲베네수엘라대통령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가 18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배격하였다.

미국회 상원이 베네수엘라를 비방성상하는 망발을 마구 쫓칠 자를 이 나라 주재 미국대사관 임명하는 놀음을 벌린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한편 20일 베네수엘라외무성은 미국대사관에 항의각서를 보내어 미국의 그와 같은 조치는

서방의 대결 정책을 비난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메디 네자드가 18일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대결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정권들은 이란이 핵국가로 되는것을 막기 위해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서 필사적으로 책동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이러한 핵국가로 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는 서방은 대결정책이 아니라 협조정책을 선택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의 평화를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메드 알 바시르가 20일 한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아프리카의 평화를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대륙에서 시급히 여러 분쟁들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자기 나라

시도는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난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팔레스타인아랍민족당국의 합법적인 정치요구라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이를 외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당국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피난민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요구

팔레스타인아랍민족당국 집행위원회 위원인 20일 팔레스타인피난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피난민들의 귀환권리보장사항을 빼놓고 그 수순형평정을 체결하려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며 그 공에 돌아나고있다.

일제페망후 총속적인 동맹관계라는 사술로 미국에 단단히 묶이운 일본은 머리는 있어도 자기 식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나라로 되어왔다. 그들은 미국을 할배처럼 여기고 눈치놀음을 하며 수종의 의사에 따라 움직이고있다. 오죽하면 일본정권들이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으면 해외에서 인사를 두고 미국행을 하는 《위상탐배》라는 판례가 생겨났겠는가. 미일관계에서는 손우동맹자와 손아래동맹자, 상전과 하수인의 관계만이 존재할뿐이다.

그것은 우선 일본의 주권이 미국의 전락위기에 리익에 돌아나고있는데서 나타났고있다.

일본의 도처에 미군사기자들이 널려져있다. 미국은 일본의 《안건》 《보호》를 위해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고있고대며 들고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일본을 침략하려 허가나 위촉을 하지 않고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 무슨 《안보》와 《위협대응》의 구실을 내세우고 일본에 반대해 미군부대를 장기적으로 주둔시키고있는것은 일본병태를 미군기지화하여 아시아침략을 위한 전략적지점으로 만들뿐 아니라 해외팽창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을 그 돌격대로, 전쟁머슴군으로 내세워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쟁로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제봉되고 주일미군에 치의법권이 부여되고 있는 일본병태에서 그들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가 살판치고있으며 이로 하여 일본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항시적으로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

이것은 본질상 인권유린이며 일본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다. 그러나 일본본정부의 제 나라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일미군의 엄중한 범죄행위를 방생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발소리 한마디 못하고 인위적인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해 넘겨주고있다.

후엔미미군기지가설문제는 미국의 전략적요구를 우선시하는 일본의 대미굴종정책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있는 주지는 요인은 일본정부가 자유국민들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본반동들을 그 돌격대로, 전쟁머슴군으로 내세워 저들의 침략야망을 손쉽게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쟁로가 미국의 군사기지로 제봉되고 주일미군에 치의법권이 부여되고 있는 일본병태에서 그들에 의한 각종

위인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세계

일 제 기 생 건 에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김정숙동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라고 하시며 남을 위해 자기를 장그러 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김정숙동무가 걸어온 인생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뜨거운 인정미는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녀사의 친품이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더없이 뜨거운 인정미는 국적을 초월한 무한 대하고 열렬했었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저택에는 항일투사들과 전국각지의 인민들은 물론 우리 수령님과 인연이 깃든 의국의 전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때마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들을 밝은 웃음으로 따뜻이 맞이하시고 온갖 사랑을 다 하여 환대하여주시었다. 하기에 누구나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뵈기만 하면 그 인정미에 끌려 헤어지지 힘들어하였다.

김정숙동지에 대한 진보적 인품의 뜨거운 추억의 세계를 전하며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장된 보편되어있는 두조의

은지가락, 여기에 깃들어있는 이야기는 어머니의 생애에서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지만은 저가락의 주인공인 이철 초연군 군관이었던 엠. 왜 와선이 새겨안은 인자하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참으로 뜨거웠었다.

해방직후 와선은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는 최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그들과 함께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녁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었다.

한없이 소탈하시고 인자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이그심에 어려움도 있고 그들은 수령님과 발상을 같이하게 되었다. 이때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식사를 하던 와선이 저가락을 서둘러쓰는것을 보시고 그렇게 앞으로 저가락쓰는 법을 배우라고 진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의 다정한 말씀에 심취되었던 그는 그날 아침잠을 주시는 두조의 은지가락을 받아안게 되었다. 그 무엇보다도 바랄수 없는 어머니의 고결한

사람이 어린 두조의 은지가락, 와선은 그후 가보로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두조의 은지가락을 볼 때마다 항일의 녀성군으로 명성을 떨치신 김정숙어머님을 감회깊이 추억하곤 하였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어느덧 그에게도 인생의 말년이 왔지만 두조의 은지가락만은 그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안고 변함없이 빛나고있었다.

그러던 그는 수십년동안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두조의 은지가락에 담겨진 사연이 자기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질것을 바라는 마음에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사랑이 깃든 은지가락들을 어느해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우리 나라에 보내어졌다.

김정숙동지에 대한 와선의 열화같은 호모심과 더불어 그에게서 지워지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뜨거운 추억의 세계는 그만이 아니라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될것이다.

핀란드 정계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하르유가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은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명장이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속하여 공화국의 중요국제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채택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3.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272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분기에 비해 3.3% 더 늘어났었다. 1.6일 미상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8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시의 한 간이식당에서 무장범들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본의 도쿄 쇼코연주소는 8일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11월에 전국적으로 1 061개의 기업체가 또 파산당하였다 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2 738억부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있다. 16일 일본경찰청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14 6만 5 223건의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

핀란드 정계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하르유가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은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명장이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속하여 공화국의 중요국제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채택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3.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272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분기에 비해 3.3% 더 늘어났었다. 1.6일 미상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8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시의 한 간이식당에서 무장범들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본의 도쿄 쇼코연주소는 8일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11월에 전국적으로 1 061개의 기업체가 또 파산당하였다 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2 738억부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있다. 16일 일본경찰청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14 6만 5 223건의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

핀란드 정계인사 담화 발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층에 즈음하여 핀란드공산주의로동당 위원장 한누하르유가 1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2월 24일은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적들을 굴복시키는 명장이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초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구실로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속하여 공화국의 중요국제상들에 대한 《특별사찰》결의를 채택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암담한 현실

▲미국에서 3.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1 272억US\$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분기에 비해 3.3% 더 늘어났었다. 1.6일 미상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8일 류혈적인 총기류범죄사건이 일어나 사회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시의 한 간이식당에서 무장범들이 사람들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본의 도쿄 쇼코연주소는 8일 조사자료에 인용하여 11월에 전국적으로 1 061개의 기업체가 또 파산당하였다 고 밝혔다. 파산된 기업체들이 진 빚은 총 2 738억부에 달하였다.

한편 일본에서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있다. 16일 일본경찰청은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총 14 6만 5 223건의 범죄행위가 감행되었다고 밝혔다.

▲에스파냐에서 계속되는 경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

▲[평양 12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모잠비크의 마부토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국제민주여성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은 오늘 조선반도정세가 미국과 남조선피괴분부호전광들의 군사적도발로 하여 초긴장